

韓日關係史研究 제68집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고대 한·일 관계 기술 분석

— 「渡來人」, 「歸化人」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

서 보 경

韓日關係史學會

THE KOREA-JAPAN HISTORICAL REVIEW

2020年 05月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고대 한·일 관계 기술의 분석

- 「渡來人」, 「歸化人」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

서 보 경**

【국문초록】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도래한 인간들’이 「渡來人」 혹은 「歸化人」이라는 용어로 표기되어 있다. 「귀화인」이 고대 일본사 연구의 장에서 먼저 통용된 학술용어이고, 「귀화인」의 대체 용어로 나온 것이 「도래인」이다.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이 2가지 용어가 야마토(大和)왕권의 성립, 발전기라고 간주되는 ‘古墳時代’에만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이들은 ‘문화전파의 매개자’로 특히 ‘대륙문화’의 전파와 교류를 담당한 존재라고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한반도보다 중국대륙의 문화와 친연관계가 강한 인간들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시기의 한일관계는 任那(가야)를 비롯한 한반도 諸國에 대한 야마토왕권의 우위라는 입장에서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歷史像은 근대 일본의 역사학이 새롭게 제기한 것이 아니라, 고대 일본의 귀족이 설정한 『日本書紀』의 일본 중심, 천황 중심 사관에 의거한 것이다. 따라서 도래인가, 귀화인가 하는 용어 사용 문제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일본서기』에 기재된 한반도 관계 기사의 철저한 분석과 비판을 통해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건너간 인간들’의 객관적인 실체를 찾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 본고는 흥익재단이 지원하는 일본 역사교과서 분석사업 [일본 초중고교과서 왜곡실태 분석 및 대책과 콘텐츠화를 위한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기획되고 준비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동 재단의 후의에 감사한다.

**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특임교수

【주제어】

도래인, 귀화인, 古墳時代, 대륙문화, 문화전파, 『日本書紀』

◆ 차례

1. 머리말
2. 「渡來人」, 「歸化人」 관련 기술과 ‘文化傳播者’론
3. 「도래인」, 「귀화인」 논쟁과 『日本書紀』
4. 맺음말

1. 머리말

일본의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의 검정은 4년 주기로 출판사의 검정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현재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역사교과서는 2015년에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것이다.¹⁾ 필자는 검정을 통과한 8종 교과서의 한일관계 서술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가야 지역을 둘러싼 한일관계’와 ‘왜왕의 「都督諸軍事」호 문제를 둘러싼 한일관계’, 그리고 ‘왜국의 對隋外交와 한일관계’에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²⁾ 이 글에서는 고대의 한일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주제이지만 이전 논고에서 언급하지 못한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건너간 인간들’에 관한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서술에 주목하려 한다.

1) 검정을 신청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18종 가운데 기존의 7종(東京出版, 教育出版, 日本文教出版, 帝國書院, 清水書院, 自由社, 育鵬社)교과서에 새롭게 마나비사(學び舎)를 더한 8종교과서가 채택되었다.

2) 2015년 8월 30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2015년 검정통과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심층분석 학술회의」에서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고대 한일관계 기술에 대한 분석-2015년도 검정통과본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이후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동북아역사논총』 51(2016)에 게재하였다.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는 ‘외부(한반도와 중국대륙)에서 일본열도로 건너간 인간들’을 「도래인」 혹은 「귀화인」이라는 용어로 표기하고 있다. 이 용어에 관한 최근의 검토는 2011년도 검정통과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고대사 서술을 분석한 연구³⁾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만든 扶桑社 및 自由社 판 교과서와 그 후신인 育鵬社와 자유사 판 교과서 서술의 문제점 연구⁴⁾ 등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된 부분은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간략히 정리하고,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도래인」 혹은 「귀화인」이라는 용어의 성립과 사용이 일본학계의 연구 동향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주의하면서 교과서의 「도래인」, 「귀화인」 관계 서술을 검토하려 한다. 따라서 일본학계의 韓日關係史像 구축 현황을 이해하는 데 이 작업이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2. 「渡來人」, 「歸化人」 관련 기술과 ‘文化傳播者’론

2015년의 검정에 채택되어 현재 사용 중인 8종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
- 3) 연민수,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古代史像과 歷史認識-2011년도 검정 합격본을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 47, 2011 ; 김은숙, 「2011년 검정통과 일본 중학 역사교과서의 고대 한국관련 서술 내용 분석」, 『일본 역사교과서의 분석과 역사교육의 실태』, 한일관계사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1.8 ; 나행주,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역사관과 고대사 서술-2011년 검정통과본의 분석을 중심으로-」, 『동국사학』 51, 2011 등.
- 4) 이근우, 「『新しい歴史教科書』의 역사인식과 선사·고대사 서술」, 『일본역사연구』 27, 2008 ; 연민수, 「新編 새로운 歷史教科書の 歷史觀과 향후의 전망」, 『역사교육논집』 43, 2009 ; 이재석, 「09년도 ‘새역모’ 역사교과서(自由社版)의 일본고대사 서술 검토」, 『역사교육논집』 43, 2009, 「새역모의 일본 古代史 구상의 특질과 문제점-自由社 교과서 및 扶桑社 <교사용 지도서>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33, 2009 등.

에 기술된 「도래인」과 「귀화인」 관련 서술에는 이들의 출신과 이주 배경 및 도래 후 일본열도에 전파한 기술과 문화 요소, 이들의 역할에 대한 평가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8종 교과서에 기술된 도래인, 귀화인⁵⁾ 관계 기술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8종 교과서의 도래인, 귀화인 관련 기술

출판사 (가나다순)	항목	내 용
1. 교육 출판	도래인이 전한 문화	대륙과의 교류가 활발해지자, 조선반도로부터 일본열도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이들 도래인은 토목공사와 금속가공, 건축물, 수혜기(須惠器)라고 불리는 토기 등의 새로운 기술을 전하였다. 또 한자를 사용하여 정권의 기록과 외국에 대한 문서를 만드는 등 정치 면에서도 활약하였다. 6세기에는 백제에서 유교와 불교가 전해져, 뒤에 일본인의 사상과 신앙을 만드는 뼈대의 하나가 되었다.
	호족들의 싸움	중앙에서도 호족간의 싸움이 치열해졌다. 도래인과 결탁하여 중앙의 재정을 담당하던 소가(蘇我)씨가 반대파 호족을 누르고 야마토(大和)정권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아스카 (飛鳥) 문화	백제에서 전해진 불교는 처음에는 도래인과 소가씨가 믿었다. 소가노 우마코(蘇我馬子)와 쇼토쿠(聖德)태자가 비조사(飛鳥寺)와 사천왕사(四天王寺) 등의 사원을 건설하는 등 새로운 정치의 기반으로서 불교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황족과 중앙의 호족 사이에서도 신앙이 확대되었다. 이리하여 스이코(推古)천황 때에 조정이 있던 아스카(飛鳥, 현재 奈良縣)를 중심으로 일본에서 최초의 불교문화가 발생하였다. 이것을 아스카문화라고 한다. 쇼토쿠태자가 세운 법륭사(法隆寺)에는 금당, 5층탑 등의 건축물을 비롯하여 석가삼존상 등의 불상과 옥충주자(玉蟲廚子) 등의 공예품과 같은 많은 문화재가 남아 있다. 이들은 주로 도래인의 자손에 의해 만들어졌다. 아스카문화에는 조선반도와 남북조시대의 중국문화가 크게 영향을 준 것 외에 멀리 서아시아, 그리스 등에서 유래한 문화의 영향도 보인다.

5) 귀화(인)나 도래(인)는 고대의 일본 사회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통시대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 고대사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귀화(인)」, 「도래(인)」이라고 표기하였다. 다만 서술 상의 번잡을 피하기 위해 이하 「」 표기는 생략한다.

2. 동경 서적	대륙 문화를 전한 도래인	조선반도와외 교류 중에 반도에서 일본열도로 일족이 한꺼번에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러한 도래인은 농업용 대형 저수지를 만드는 기술 이외에 고온에서 굽는 단단하고 검은 토기(수해기)와 철제 농기구, 고품질 견직물을 만드는 기술을 전하였다. 도래인은 또 한자와 유학, 나아가 6세기 중반에는 불교를 전한 것 이외에 조정의 기록과 제정에 임하거나 외국으로 보내는 서신을 작성하는 등 다양한 면에서 활약하였다.
	아스카 문화	6세기 중엽 백제로부터 조정에 불상과 경전이 보내져서 불교가 전해졌다. 소가(蘇我)씨는 쇼토쿠(聖德)태자와 함께 불교를 확대하려 했기 때문에 대왕이 있던 아스카지방(나라분지(奈良盆地) 남부)을 중심으로 일본에서 최초의 불교문화가 꽃피었다. 이것을 아스카문화라고 한다. 법륜사의 석가삼존상 등...주로 도래인의 자손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남북조시대의 중국과 더 멀리 인도와 서아시아 등의 문화 영향도 보인다.
3. 마나 비사	도래인	<주석> 조선반도와 중국으로부터 집단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토기와 철기제조, 배 짜는 기술, 한자를 쓰는 문화를 전하였다. 야마토(大和) 정권의 호족이 된 일족도 많다.
	아스카 시대	불교는 6세기 전반 조선반도의 백제로부터 전해졌다. 비조사는 승려와 건축, 기와, 불상제작 기술자 등 백제 등에서의 도래인의 힘을 빌려 약 20년에 완성되었다. 왜국에서 최초의 불교 지도자는 여성이었다. 3인의 여성이 고구려에서 도래한 승려에게 배우고 또 백제에 유학하여 수행하였다. 귀국한 뒤에는 불교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였다.
4. 육봉사	귀화인이 전한 것	대륙과의 관계가 깊어지자 전란이 계속된 조선반도나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족과 함께 우리나라에 옮겨 살게 되었다. 이 사람들을 귀화인(도래인)이라고 한다. 조정이나 각지의 호족은 뛰어난 지식과 기술을 가진 귀화인을 융숭하게 맞아들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는 대륙문화가 많이 전해졌다. 철제농구와 무기, 수해기라고 불리는 단단한 토기를 굽는 방법이나 배를 짜는 기술, 관개용을 위한 저수지를 만드는 공법, 나아가서는 한자와 유교 등도 전해졌다. 또 6세기 중엽에는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하는 백제왕이 불상과 경전을 헌상하여 불교가 전래되었다. 그 후 불교와 유교는 일본인의 사상과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귀화인은 그 후에도 관리로서 조정에 근무하거나, 한자 등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 우리나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아스카 문화	7세기 전반의 아스카시대에는 불교를 기반으로 한 문화가 번성하였다. 이것을 아스카문화라고 부른다. 중국과 조선에서 전해진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일본인의 미의식을 담은 건축과 미술품이 만들어졌다. 소가씨는 최초의 사원인 비조사를 세우고, 쇼토쿠태자는 법륜사를 건립하였다. 법륜사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목조건축으로...법륜사에는 구라쓰쿠리노도리(鞍作鳥, 도리불사(止利佛師)에 의한 석가삼존상과 온화한 표정이 특징인 백제관음상 등의 불상 외에...옥충주자 등이 남아 있다.

5. 일본 문교 출판	중국, 조선과의 교류와 도래인	조선반도와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대량의 철이 넓적한 판과 같은 형태로 야마토왕권에 들어갔다. 또 조선반도인들이 일족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증가하였다. 이들을 도래인이라고 부른다. 도래인은 일본열도 각지에 거주하면서 토목, 건축, 마구, 금속가공, 고급 견직물, 고온에서 굽는 단단한 토기(수혜기)를 만드는 기술을 전하였다. 또한 한자, 유교, 불교 등을 전함과 동시에 야마토왕권에서의 기록과 재정, 정치에도 관여하여 그 후 일본의 기술과 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쇼토쿠 태자와 아스카 문화	도래인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소가씨는 백제로부터 전해진 불교를 도입하려 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모노노베(物部)씨를 멸망시키고 큰 권력을 쥐게 되었다(소가씨와 쇼토쿠대사). 6세기 중엽 경까지 전해진 불교는 도래인과 소가씨로부터 황족과 호족에게도 확산되었다.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경쟁적으로 사원을 건립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대의 아스카 지방을 중심으로 한 최초의 불교문화를 아스카문화라고 부른다. 백제와 고구려를 통해 전해진 중국 남북조 시대와 멀리 인도와 그리스 등의 영향이 보이는 문화이다(아스카문화).
6. 자유사	불교전래 배경	5~6세기 남북조시대에 불교가 크게 발전하였고 남조의 송으로부터 조선반도의 백제에 전해졌다. 6세기 전반 당시 백제는 고구려, 신라에게 공격받아 존망의 위기에 있었다. 백제는 일본에게 여러 번에 걸쳐 군사 원조를 요청하였다. 백제의 성명왕은 일본과의 동맹을 강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552년 금동불상과 경전을 야마토조정에 헌상하였다.
	귀화인의 역할	동아시아의 전란을 피해 많은 난민이 일족이나 집단으로 일본에 이주하였다. 이를 귀화인(도래인)이라고 한다. 귀화인은 토기(수혜기)나 금속기의 가공, 토목·건축 등의 기술과 유교를 전하였고, 한자에 의한 조정의 문서 작성에도 힘을 발휘하였다. 불교가 전래되자 백제에서 불상, 불구 공예가와 사원건축 공인이 도래하여 불교예술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7. 제국 서원	도래인	이 시기에 전란이 많았던 중국과 조선반도에서 왜국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을 도래인이라고 부른다. 도래인은 토기(수혜기)와 철기의 제조, 베타기, 한자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많은 기술을 전하였다. 더구나 야마토왕권에서도 외교와 정치, 재정 등으로 활약하였다. 6세기에는 불교와 유교를 전하여 일본 사람들의 신앙과 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아스카 문화	불교가 전해진 뒤에도 조선반도를 경유하여 불상과 경전이 들어왔다. ...이제까지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이던 고분 대신 법륜사 등의 사원이 중시되었다. 중국이 통일국가가 되자 서아시아와 인도와 활발히 교류를 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일본에 전해진 불교미술과 건축에는 그 영향이 보인다. 이러한 해외와의 교류에 의해 야마토의 아스카(나라현)를 중심으로 꽃핀 불교문화를 아스카문화라고 부른다.
	쇼무(聖武) 천황과 불교	도래인이 전한 불교는 나라시대 중반까지는 흥복사를 세운 후지와라(藤原)씨 등 일부 귀족만이 신앙하였다. 이것을 전국에 확대한 것이 쇼무(聖武)천황이다.

<p>8. 청수 서원</p>	<p>동아시아의 동란</p>	<p>아마토왕권은 조선반도로 진출을 도모하여 특히 5세기에는 조선반도에서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게 위해 국내에서 지배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중국 황제에게 여러 차례 사자를 파견했다. 이 무렵 중국과 조선이 각기 분열되어 있고 통일을 지향하여 격렬히 싸우고 있었다. 이 쟁란 중에 왜로 건너간 사람들(도래인)도 많았다. 칼럼 <도래인> 도래인은 용수로와 고분을 만드는 토목기술, 철제품을 만드는 대장기술, 단단한 재질의 토기(수해기)와 베 짜기 기술 등을 일본에 전하였다. 또한 한자와 유교도 전하여 ... 6세기 중반 무렵에는 백제의 왕으로부터 정식으로 불교가 전하여졌다. 이들 문화는 그 후 일본 문화와 종교에 큰 영향을 주었다.</p>
	<p>아스카 문화</p>	<p>쇼토쿠태자는 깊이 불교를 신앙하고 범룡사 등의 많은 사원을 건립하였다. ... 이 문화는 중심이 나라분지 남부 아스카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아스카 문화라고 불리며, 조선반도로부터 도래인이 전달한 중국문화 등의 영향이 크다.</p>

<표 1>의 도래인과 귀화인 관계 서술에는 3가지의 특징이 확인된다. 첫째, ‘한반도⁶⁾에서 일본열도에 도래한 인간들’을 칭하는 용어로 도래인을 사용한 것은 6개 출판사인데 비해, 귀화인(도래인)이라고 표기한 것은 2개 출판사(육봉사, 자유사)이다. 따라서 현행 교과서는 도래인이라는 표기가 주류를 이룬다. 둘째, 도래인, 귀화인 관계 기술은 5세기를 중심으로 하여 7세기 전반의 스이코조(推古朝)를 중심으로 한 아스카문화⁷⁾ 서술까지로 한정된다. 다만 아스카문화에 관한 서술에는 도래인과

6) 중학교 8종 역사교과서는 한반도를 모두 ‘조선반도’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표기는 일본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한반도를 ‘조선’이라는 용어로 표기하는 것에 의거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48년에 정부를 수립하면서 ‘대한민국’이라고 국호를 정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토의 전역을 ‘한반도’라고 통칭하고 있으므로 ‘한반도’라고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서보경, 앞의 논문, 2011, 172쪽). 이 글에서는 인용문 외에는 ‘한반도’라고 표기 한다.

7) 불교의 전래에 관한 육봉사와 자유사의 백제왕의 ‘현상’에 의거한 것이라는 기술은 『일본서기』의 기사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당시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반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외에도 <불교의 전래와 아스카문화>에 관한 서술은 2011년과 내용상의 차이가 거의 없다. 이와 관련된 교과서 서술의 문제점은 김은숙의 논고(앞의 논문, 2011, 50~53쪽)를 참조하기 바란다.

의 연관성이 직접 드러나지 않게 서술된 육봉사(쇼토쿠대자와 소가씨의 불교 신앙에 초점을 맞춘 기술), 일본문교출판과 제국서원(불교 전래만 도래인과 관련하여 기술), 자유사(소가씨의 불교 수용에 관해서만 기술)의 사례도 확인된다. 따라서 도래인과 귀화인이라는 용어는 야마토왕권의 성립과 발전기라고 간주되는 ‘古墳時代’에만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셋째, 도래인 혹은 귀화인 관련 기술에는 ‘도래인이 전한 문화, 대륙문화를 전한 도래인, 중국, 조선과의 교류와 도래인, 귀화인이 전한 것, 아스카문화’ 등 문화 전파자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첫 번째 특징으로 제시한 도래인과 귀화인이라는 용어 사용에 관한 문제는 기존의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분석에서도 논의된 주제이다. 근래의 역사교과서 분석에서는 귀화인이라는 용어가 학계에서 이미 그 존재 의미를 상실하였다고 간주하고, 육봉사와 자유사의 ‘귀화인(도래인)’이라는 표기가 일본 학계의 연구 동향을 역행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⁸⁾ 그러나 최근의 일본 고대 사학계에서는 도래인 대신 귀화인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논의가 표면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岩波講座 日本歴史』 제5차 시리즈⁹⁾ 고대편에 도래인이 아니라 귀화인을 표제로 내세운 논고가 실린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문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다음은 두 번째 특징으로 든 도래인, 귀화인 용어 사용 시기에 대해 살펴보자. <표 1>에서 도래인, 귀화인 관련 서술이 ‘고분시대’에 한정적으로 사용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술이 일본학계의 연구 동향

8) 나행주, 앞의 글, 198쪽.

9) 岩波書店이 간행하는 일본사학에 관한 총서로 대학생 이상의 전문 역사 연구자와 역사 담당 교사를 독자로 상정하여 각 시대의 개별 주제에 관한 개설적인 논문이 주로 수록된다. 현재까지 『岩波講座 日本歴史』 총서가 4회(제1차 시리즈; 1933~1935, 제2차 시리즈; 1962~1964, 제3차 시리즈; 1975~1977, 제5차 시리즈; 2013~2015), 같은 취지에 기반을 둔 『岩波講座 日本通史』(제4차 시리즈, 1993~1997)가 1회 간행되었다.

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우에다 마사아키(上田正昭, 1927~2016)가 1965년에 펴낸 『歸化人』에서 외부에서 일본열도로 도래가 이루어진 시기를 4 시기로 나누었다.¹⁰⁾ 우에다 마사아키의 이주 시기 분류는 『일본서기』와 『古事記』, 『新撰姓氏錄』 등에 기술된 중국계 혹은 한반도계라고 칭하는 씨족의 조상전승과 왕권에서 파견한 인물의 도래 기사를 검토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야마토왕권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외부에서의 이주를 왕권의 형성 단계에 따라 분류한 시기 구분은 이후 학계에 널리 수용되었다. 예컨대 1993년 『日本史大事典』에 수록된 「渡來人」 항목은 스즈키 야스타미(鈴木靖民)가 서술을 담당한 것이다. 이 도래인 항목에 기술된 도래인의 이주 시기는 우에다 마사아키와 같이 첫째,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후 3세기, 둘째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셋째,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넷째, 7세기 후반의 4시기로 분류되어 기술되어 있다. 또 스즈키 야스타미는 이 4시기 가운데 “둘째와 셋째 시기에 한반도에서 도래한 사람들이 가져온 무기, 무구나 농구류 등 금속기의 주요 기술의 보급, 새로운 토기 제작과 베를 짜는 기술의 전파, 건전농업과 잡곡 재배 기술 등이 당시 일본의 정치, 군사, 생산력의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회를 뿌리부터 변질시키는 새로운 기원이 되었다.”¹¹⁾라고 서술하였다. 스

10) 우에다 마사아키는 도래의 시기를 4 시기로 구분하였다. 첫째, 기원 전 200년경부터 기원 후 3세기로 도작을 중심으로 한 농경문화 전래될 때 대륙문화와 함께 많은 사람들의 도래, 둘째,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에 걸쳐 야마토 조정의 군대가 고구려의 군대와 충돌한 시기와 5세기에 중국왕조와 통교가 활발한 시기에 조선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도래(應神, 仁德朝), 셋째,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초 신라와 고구려의 세력이 강성해지자 조선남부에서 백제인 중심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도래(雄略, 欽明朝), 넷째, 7세기 후반 天智(덴지)조를 전후하여 백제와 고구려 멸망에 수반한 한반도 남부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래까지 4단계를 제시하였다(上田正昭, 「歸化以前」, 『歸化人—古代國家の成立をめぐる』, 中公新書, 1965, 23-26쪽).

11) 鈴木靖民, 「渡來人」, 『日本史大事典』 5, 平凡社, 1993, 267쪽.

즈키 야스타미가 언급한 ‘둘째와 셋째 시기’는 바로 ‘고분시대’이고, 그가 제시한 전파된 문화요소와 역할에 관한 평가는 <표 1>에 기재된 도래인, 귀화인이 전파한 기술과 도래 후 일본열도에 미친 영향을 기술한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임이 확인된다.

다음은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건너가게 된 배경과 출신지에 관한 서술을 살펴보자. 8종 교과서에 기술된 도래 배경과 출신지에 관한 서술은 2가지 유형으로 분류 가능하다. 하나는 중국대륙과의 교류가 활발해진 것(교육출판), 한반도와의 교류가 활발해진 것(동경출판, 일본문교출판)을 배경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이주한 사람들이라고 서술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조선과 중국의 전란(육봉사, 제국서원, 청수서원) 혹은 동아시아의 전란(자유사)을 피하여 조선과 중국에서 이주한 사람들라고 서술한 것이다. 또 육봉사는 전란뿐만 아니라 대륙과의 교류의 활발화도 도래의 배경으로 거론하였고, 자유사는 귀화인(도래인)이 전란을 피하기 위해 이주한 ‘난민’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마나비샤는 도래 배경에 관한 기술은 보이지 않고, 조선반도와 중국에서 집단으로 이주한 사람들라고 규정하였다.

먼저 대륙이나 조선, 동아시아와의 관계가 활발해진 것이 도래 배경이 되었다는 기술은 일본열도로 왜 이주했는가 하는 이주의 역사적 원인에 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이 기술은 중국이나 조선반도 등 이른바 ‘동아시아 세계’와의 관련성에 중점을 두고 일본열도가 고립되지 않고 활발히 교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다음은 도래인을 전란에서 도망간 인간(집단)이라고 규정하고 ‘난민’ 수용의 부산물로 문화가 전파된 것이라고 설명한 것은 우에다 마사아키가 “이른 시기부터 중국대륙과 한반도에서 다수의 인간들이 바다를 건너 일본열도에 이주했는데, 한반도가 고구려, 백제, 신라 등 3국으로 정립되면서 재난에서 탈피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도래하게 되었다.”¹²⁾라고 설명한 것이나, 히라노 구니오가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귀화가 이루어

진 시기는 한반도의 정치적 긴장이 가장 고조된 상황이었다고 서술하며, 이주의 역사적 배경을 상대국의 정치 변동이나 전란이라고 설명한 것¹³⁾과 맥이 닿는다.¹⁴⁾

또 '외부에서 일본열도로 도래한 인간들'의 출신을 '조선반도와 중국(대륙)'이라고 병렬적으로 기술한 것은 『일본서기』와 『신찬성씨록』에 기술된 「도래」 씨족의 중국 출신이라는 조상전승에 의거한 것이다. 그러나 『신찬성씨록』의 諸蕃(漢, 百濟, 高[句]麗, 新羅, 任那)에는 326개의 조문이 게재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63개가 漢 즉 중국 계통 씨족이다. 따라서 중국계가 제번 전체의 반수를 점하고 있지만 그 대부분은 出自(出身)를 2차적으로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고친 것이다.¹⁵⁾ 그러므로 『일본서기』와 『신찬성씨록』에 기재된 조상전승에 기초하여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향한 인간들의 출신을 중국대륙과 한반도 출신이라고 병렬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음은 이들이 전파한 기술과 문화의 성격에 관한 서술을 살펴보자. 동경서적은 <표 1>에서 조선반도에서 열도로 이주한 도래인이 전한 문화를 '대륙문화'라고 기술하였다. 또 도작과 야요이 문화에 관한 기술에서는 '대륙(주로 조선반도)에서 이주한 사람들에 의해 전파된 것'¹⁶⁾이라

12) 上田正昭, 앞의 책, 59쪽.

13) 히라노 구니오는 이주가 이루어진 시기를 1) 4세기말 오진조(應神朝), 2) 5세기말부터 6세기 초의 유라쿠조(雄略朝), 긴메이조(欽明朝), 3) 7세기 후반의 덴지(天智), 덴무(天武), 지토조(持統朝)로 나누었다(平野邦雄, 『歸化人と古代國家』, 吉川弘文館, 1993, 1~10쪽).

14) 도래인, 귀화인의 도래와 이로 인한 문화 전파가 야마토왕권이 한반도의 정치적 혼란에 개입한 결과물이라는 설명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고(서보경, 앞의 글, 184~186쪽)에서 지적한 바 있다.

15) 加藤謙吉, 「序章 渡來氏族とは何か」, 『渡來氏族の謎』, 祥傳社, 2017, 15~18쪽.

16) "기원전 4세기경 대륙(주로 조선반도)에서 이주한 사람들에 의해 도작이 규슈 북부에 전해졌다. 도작과 함께 청동기와 철기 등 금속기도 전하였다."

고 하였다. 따라서 동경서적의 ‘대륙문화’는 주로 한반도인이 전한 한반도 문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한반도문화’가 아니라 ‘대륙문화’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출판도 “조선반도 등에서 건너온 사람들은 수전에서 도작과 새롭게 제조한 토기와 농구 등 대륙문화를 전한 것”¹⁷⁾이라고 기술하였다. 또 교육출판의 2011년도판 ‘도래인이 전한 문화’에는 “대륙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되자 조선반도에서 일본열도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이들 도래인은 토목공사와 금속가공, 견직물, 수혜기라고 불리는 토기 등 대륙의 뛰어난 기술을 전하였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교육출판의 2015년도판(〈표 1〉)과 다른 점은 ‘대륙’ 대신에 새로운 기술이라고 바꾼 것뿐이므로 앞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한반도 출신의 도래인이 전한 문화가 ‘대륙문화’인 것이다. 그런데 일본문교출판과 제국서원에서는 중국과 조선반도, 대륙과 조선반도로 나누어 양자를 분명히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문교출판, 제국서원 등의 사례를 통해 보더라도 ‘대륙문화’의 대륙은 중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컨대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는 한반도인, 한반도 문화의 이동과 전래가 분명한 경우에도 ‘대륙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한반도와의 관계가 드러내지 않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또 육봉사는 〈표 1〉에서 ‘조선반도나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족과 함께 우리나라에 옮겨 살게 된 사람들을 귀화인(도래인)’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을 맞아들인 결과 ‘대륙문화’가 전해졌다고 한다. 더구나 도작과 야요이 문화를 기술할 때는 ‘대륙과 조선반도에서 전해진 것’으로 ‘대륙의 농경문화의 영향에 조몽(繩文)문화를 융합한 문화’¹⁸⁾라고 기술

17) “기원전 6~7세기경 조선반도 남부인들이 새로운 토지를 찾아서 규슈(九州) 북부로 도래하였다. 이들이 수전에서 도작과 새롭게 제조한 토기와 농구 등의 대륙문화를 일본열도에 전하였다.”

18) “대륙과 조선반도에서 전해진 수전도작과 야요이(彌生)문화는 대륙의 농경문화 영향 강하게 받으면서도 토기제작 기술, 석기, 수혈주거와 묘 등 다방면에서 조몽(繩文)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토대로 대륙문화를 수용하여 융합

하였다. 이것은 ‘일본인’은 토착민이 외부민족을 동화하면서 형성된 것이고, ‘일본문화’는 토착민이 외부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면서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기술은 토착민이 외부 민족을 동화하면서 일본인이 형성되었고, 토착민이 외부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면서 일본문화가 형성되었다는 설¹⁹⁾과 야요이시대에 이루어진 외부 민족의 도래가 소규모였다고 간주한 설²⁰⁾ 등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남방계인 조몽인과 북방계인 야요이인의 혼혈에 의해 성립된 것이라는 설²¹⁾에 의거하면 위와 같은 서술(육봉사)은 일본열도로 이동한 한반도인의 이주를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도래인과 귀화인의 역할에 관한 서술에는 교육출판을 비롯한 모든 교과서에서 이들이 조정에서 정권의 문서 기록이나 외교문서 작성, 재정 등의 일을 담당하거나 소가씨 등 대호족과 결탁한 존재, 혹은 호족세력으로 성장한 존재로 중앙에서 활동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도래인 혹은 귀화인은 중앙의 지배층이나 정권의 실무직에 종사한 관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것은 이들이 대규모 집단 이동이 아닌 일족 단위의 소규모 이동을 통해 일본열도로 건너와 야마토왕권에 봉사하며 중앙에 거주한 존재라고 규정한 것을 의미한다. 또 벼농사 등 농경문화가 시작되는 야요이시대와 7세기 후반의 고구려, 백제 멸망을 즈음해 한반도로부터 일본열도로 향한 인간들은 모두 도래인의 범주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교과서에 기술된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도래

한 문화이다.”

- 19) 岡崎敬, 「日本における初期稲作資料との関連にふれて」, 『朝鮮學報』 49, 84쪽; 森貞次郎, 「彌生文化の發展と地域性1 九州」, 『日本の考古學3 彌生時代』, 河出書房, 1966, 32~80쪽.
- 20) 田中良之·小澤佳憲, 「渡來人をめぐる諸問題」, 『彌生時代における九州韓半島交流史の研究』, 九州大學, 2001, 17~18쪽.
- 21) 金關丈夫, 『日本民族の起源』, 法政大學出版局, 1976; 中橋孝博, 「倭人の形成」, 『日本の時代史 1 倭國誕生』, 吉川弘文館, 2002 등.

한 인간들' 즉 도래인, 귀화인이 『일본서기』에 기재된 내용에 기초하여 야마토왕권에 봉사하는 인간들에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요컨대 한반도로부터 일본열도를 향한 인간의 이동은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 떠난 집단적인 이동, 정치적 망명, 비자발적인 이동(왜국의 요청에 의한 기술자, 유식자의 파견, 전쟁 포로로 끌려감) 등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도래인이나 귀화인에 관한 서술은 인간의 이동이 아니라, 야마토왕권에 봉사한 문화 전파자라는 측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것은 교과서에 따라 도래인, 귀화인이라는 용어 사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일본서기』에 기재된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건너간 인간들에 대한 기술과 맥을 같이 한다.

한편 도래인, 귀화인이라 불린 한반도에서 도래한 인간들이 문화전파를 매개한 존재라는 관점에서의 기술은 '遣唐使'가 파견된 7세기 전반이 되면 교과서에서 사라진다. 이러한 교과서의 기술은 일본학계의 중국의 정치제도 및 외교, 문화를 직접 수입한 주역으로 건당사가 언급되고 있고, 이들에 의해 유입된 여러 문화가 일본의 율령체제 및 중앙집권 국가로의 성장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하는²²⁾ 연구 경향이 중학교 교과서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물론 중국의 선진적 정치제도와 문화가 고대 일본의 국가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고, 중국 문화 수용에 '건당사(遣隋使 포함)'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존재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건당사'를 중심으로 교과서를 서술하는 것도 일본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더구나 교과서라는 한정된 지면에 서술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고 간주되는 내용을 우선 서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7세기 후반의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이후 왜 조정이 파악한 백제 유민의 수가 3천 1백인 정도에 달하고 이후에도 수십 명 단위의

22) 森克己, 『遣唐使』, 至文堂, 1955 ; 東野治之, 『遣唐使』, 岩波書店, 2007 ; 森公章, 『遣唐使と古代日本の對外政策』, 吉川弘文館, 2008 등.

안치 기사가 확인되므로 상당수의 유민이 일본열도로 향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²³⁾ 또 덴지(天智)천황 8년(669)이후 大寶 2년(702)에 견당사의 파견이 재개되기까지 30년 정도는 견당사의 파견이 정지된 시기로 일본의 대외 교류 창구가 신라에만 한정된 시기였다.²⁴⁾ 따라서 덴지조에 한반도에서 도래한 고구려와 백제 유민의 일본열도에서의 활동과 신라와의 교류는 적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이동과 문화전파에 관한 기술은 보이지 않고, 견당사를 중심으로 한 ‘대륙문화’ 유입에 관한 기술 일색이다.²⁵⁾

요컨대 야마토왕권의 성립과 발전기에 해당하는 ‘고분시대’에 한정하여 기술되고 있는 도래인, 귀화인은 ‘일본열도에 도래한 인간들’ 즉 인간(집단)의 이동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전파한 문화 즉 문화전파자라는 측면에 무게 중심이 놓여 있다. 또 이들이 전파한 기술, 문화는 ‘대륙문화’로 규정되어 한반도보다 중국과의 친연관계를 강조하였다. 더구나 중국 문화와의 연계성 문제는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 1919~1998)가 주장한 ‘동아시아론’과도 관련이 있다. 니시지마 사

23) 정효운, 「백제 멸망 이후 유민들의 일본 내 활동」, 『일본 속의 百濟 긴키(近畿) 지역』,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편, 충청남도, 2017, 691쪽.

24)鈴木靖民, 「日本律令制の成立・展開と對外關係」,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985, 20쪽; 이병로, 「나라시대 신라와 일본의 불교 교류에 관한 연구」, 『일본어문학』 29, 2005, 629쪽; 연민수, 「통일신라의 대일관계」, 『한일역사쟁점논집』 전근대편, 동북아역사재단, 2010, 277쪽.

25) 8종 교과서 중에 육봉사와 청수서원에서만 ‘하쿠호(白鳳)문화’에 관한 서술이 보인다. 전자는 “덴무, 지토천황 시대에는 율령국가의 건설을 향한 사람들의 기세를 반영하여 淸新한 문화가 발생하였다. 이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초의 문화를 하쿠호문화라고 부른다. ... 회화는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불교예술품을 수용한 법륜사 금당벽화가 알려져 있다.”라고 하고, 후자는 “7세기 후반경의 불교 영향과 새로운 국가 만들기의 시대를 반영한 淸新한 문화가 하쿠호문화이다.”(칼럼: 하쿠호문화)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것은 덴무, 지토조를 중심으로 한 하쿠호문화가 율령국가 건설기의 문화로 初唐문화의 영향을 받아 淸新하며 약동적인 문화라고 규정된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다오는 근대 이전 각 지역마다 완결된 세계가 존재하는데 ‘동아시아세계(주로 6~8세기 중심의 개념)도 그 가운데 하나이며 중국을 중심으로 주변의 한반도, 일본과 베트남 등 여러 지역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세계의 문화적 지표는 한자, 유교, 율령제, 중국불교 등을 들었다. 따라서 ‘동아시아세계’에 속한 여러 나라의 문화는 공통적으로 중국에 기원을 두었거나 적어도 그 영향을 받았다고 간주되었다.²⁶⁾ 그러므로 이러한 ‘동아시아’론에 기초하여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도래한 인간들’이 전파한 한자, (중국)불교, 유교, 율령제 등이 모두 ‘대륙문화’로 기술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세계의 절대 다수의 민족과 국가에서 형성된 문화는 끊임없이 자민족 이외의 문화와 충돌, 융화를 반복하며 자민족의 문화전통이라는 여과기를 통해 타자의 문화를 수용하고 융합 혹은 개변시켜 나간다. 예컨대 인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4세기에 백제로 전파된 불교문화가 ‘백제화된 문화’로 6세기에 일본에 전파된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를 문화의 경유지, 한반도에서 도래한 인간들을 문화의 전파자로만 규정한 것은 문화가 역사적 과정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일반 속성을 도외시한 기술이다.

3. 「도래인」, 「귀화인」 논쟁과 『日本書紀』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현행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도래인이라는 용어가 귀화인(도래인)이라는 용어 사용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도래한 인간들은 1960년대까지는 일반적으로 귀화인이라고 불렸다. 따라서 현행 교과서에 기술된 도

26) 廣瀬憲雄, 「古代東アジア地域對外關係の研究動向—‘册封體制’論·‘東アジア世界’論と‘東夷の小帝國’論を中心に」, 『歴史の理論と教育』 129・130, 2008, 4~5쪽.

래인과 귀화인(도래인)이라는 용어 사용이 일본학계의 연구 동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고대 일본사 연구의 장에서 먼저 만들어져 통용된 것은 귀화인이다. 귀화인에 관한 언급은 에도(江戸) 시대 국학자의 연구까지 소급되지만 고대 일본사 연구의 장에서 통용되는 학술용어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세키 아키라(關晃, 1919~1996)가 1956년 『歸化人』을 출판한 이후이다. 그런데 우에다 마사아키가 1965년에 『歸化人』²⁷⁾이라는 제목을 붙인 책을 내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귀화라는 용어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귀화’는 중국을 세계의 중심에 두고 이민족을 蕃人, 夷狄, 夷人 등으로 부르며 멸시하고 王의 교화가 미치지 못한 化外の 나라에서 왕의 덕치를 사모하여 스스로 왕법의 권역 내에 들어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중화사상에 의거한 것이다. 따라서 ‘귀화’는 귀화해야 할 대상인 국가의 성립이 전제되어야 하고, 외부에서 일본열도로 ‘스스로’ 이동한 사람에게만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둘째, 귀화는 『일본서기』에 기재된 용어이고, 『일본서기』는 천황 통치의 정당성과 천황가의 신성성, 주변 제국에 대한 우월성 등을 과시하기 위해 편찬된 사서이다. 따라서 율령체제의 확립과 함께 나온 사료와 법령²⁸⁾ 등에 귀화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도래인 전부를 귀화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27) 주 10) 참조.

28) 귀화에 관한 규정은 당에서는 戶令과 賦役令 등에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치가 실제적으로 행해졌다고 간주된다. 또 일본에서도 唐令과 유사한 규정이 존재한 것은 『養老戶令』(沒落外蕃條)과 『養老賦役令』(沒落外蕃條, 人在狹鄉條)의 관련 조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율령법에 나타난 법적 행위는 천황의 백성이 되기 위한 절차이고 천황의 덕화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王化思想이 반영되어 있다. 일본 고대사료에 기재되어 있는 귀화 용례와 양로령에 규정된 귀화에 관한 규정의 의미에 관해서는 金善民의 「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歸化の意味」(『國際中國學研究』 10, 2007)와 박이순의 「高麗·唐·日本에 있어서의 「歸化(人)」 관련 의 법 연구－일본의 養老律令을 중심으로－」(『한국민족문화』 43, 2012) 참조.

있다. 셋째, 『고사기』와 『풍토기』에는 귀화가 아니라 「渡來」(「度來」)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국가가 성립되기 전, 호적의 부재 상태에서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강제적인 이주나 일시적으로 도래한 인간은 귀화인이 아니라 도래인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⁹⁾

또 재일사학자 金達壽(1920~1997)³⁰⁾도 1969년 초 우에다 마사아키,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 1923~1996), 무라이 야스히코(村井康彦, 1930~) 등이 참가한 『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의 창간호 좌담회에서 “야마토정권이 확립되기 이전에는 도래인이라고 부르고 그 이후 시대가 아스카에서 나라(奈良)로 이행된 이후에는 귀화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³¹⁾ 이것은 김달수가 우에다 마사아키의 견해를 지지하며 도래인이라는 용어를 야마토정권이 성립되기 이전에 일본열도에 이주한 사람들에 한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귀화인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고대 국가의 형성 단계에 따라 도래인과 귀화인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주자의 도래 시기와 그 경위 이주 후의 환경과 정치 권력과의 관계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는 사실상 곤란하다.³²⁾

29) 上田正昭, 앞의 책, 20-30쪽.

30) 김달수는 기타 사다키치(喜田貞吉, 1871~1939)가 “야마토 민족과 조선인은 근본부터 구별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며 한국은 빈약한 분가이고 우리나라는 실로 부강한 본가라고 설명한 것과 반대로 『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 12 (講談社, 1995)에서 7세기 이전 일본열도 거주민의 대다수가 한반도로부터 이주한 인간들이라고 간주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1948년 이후 에가미 나미오(江上波夫)가 제창한 ‘기마민족정복왕조’설과 1964년 『歴史評論』(5, 8, 9)에 번역되어 실린 김석형의 ‘삼한삼국일본열도분국’론에 기반을 둔 것이다 (廣瀬陽一, 「金達壽 『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論, 『人間社會學研究集録』, 2013, 23~ 44쪽).

31) 上田正昭·金達壽·司馬遼太郎·村井康彦 「座談會 日本のなかの朝鮮」, 『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 1969.3, 29쪽.

요컨대 우에다 마사아키, 김달수 등의 노력과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진의 황국사관에 대한 반성과 식민지 통치를 둘러싼 정치적인 논쟁 등 사회적인 배경이 더해져 1970년대 후반부터 일본학계에서는 귀화인 대신에 도래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일본의 역사교과서에도 귀화인이라는 용어 대신 도래인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³³⁾

그런데 히라노 구니오(平野邦雄)가 1993년 『歸化人と古代國家』에서 귀화 대신에 도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新 귀화인’론³⁴⁾을 제시하면서부터 일본 역사학계에서 귀화(인)라는 용어로 복귀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再起되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근래 재기된 ‘귀화인’론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세키 아키라의 ‘귀화인’론을 되짚어 보려 한다. 세키 아키라의 서술 관점과 전체적인 구상이 정리되어 있는 『귀화인』의 머리말과 서론에 기재된 귀화인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귀화인은 일본에 거주하며 일본인의 일부가 된 우리의 조상이다.
- 2) 귀화인이 중국과 조선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기술과 지식, 문물이 당시 일본 사회의 진전과 문화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 3) 귀화인의 이주는 대규모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도래한 오래된 귀화인,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후반에 도래한 새로운 귀화인, 그리고 7세기 후반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뒤의 망명자, 나라조(奈良朝)가 되어 도래한 귀화인 등으로 나뉜다.
- 4) 귀화인은 처음 도래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특수성이 존재하는 여러 대 이후의 자손도 포함된다. 헤이안(平安) 시대 초기 경이 되면 귀화인이 가진 특수성은 상실된다.³⁵⁾

32) 加藤謙吉, 「渡來人」, 『古代史研究の最前線1 政治・經濟編 上』 雄山閣出版編, 雄山閣, 1986.

33) 上田正昭, 「渡來と歸化」, 『古代の道教と朝鮮文化』, 人文書院, 1989, 108~124쪽.

34) 주 13) 참조.

35) 關晃, 「はしがき」, 「序論」, 『歸化人—古代の政治・經濟・文化を語る』, 至文

1)에 제시된 ‘귀화인이 일본인의 조상’이라는 설명은 1910년(대한제국 융희 4년, 명치 43년) 일본이 한국 합병을 전후하여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내세운 조선과 일본이 원래 同源, 同祖 관계였다는 설명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다키치(喜田貞吉, 1871~1939)의 ‘日鮮兩民族同源’論이나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 1872~1967)의 ‘日鮮同祖’論이 일본 국민이 귀화인을 완전한 일본인으로서 융합한 동화력을 높이 평가하고 일본인이 이들을 포섭하며 인종적인 편견이 적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역점을 둔 것이라면³⁶⁾ 세키 아키라가 제시한 귀화인은 에도시대의 國學者나 ‘황국사관’의 국수주의 독선적 사관에서 경시된 일본 고대 사회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점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또 그는 『귀화인』 집필 당시 일본 사회에 만연한 마르크스주의사학에 기초한 이론 중심의 연구 태도를 비판하며 외부로부터 인간 이동이 확인되는 『일본서기』 등의 고문헌을 검증하여 고대 사회의 형성문제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1950년대 이후의 일본 사회는 민족주의가 고양되고 민족문화가 찬미되는 등 민족이 큰 주제가 된 시기였다. 따라서 쇼몽(繩文)시대 이후 일본 민족이 형성되어 외래문화를 흡수하면서 발전했다고 보고 태고부터 일본 고유의 민족이 계속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세키 아키라가 귀화인을 일본인의 일부가 된 우리의 조상이라고 규정한 것은 일본 민족 형성 문제에 관한 재고 작업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³⁷⁾

요컨대 2)에 기술한 것과 같이 세키 아키라가 고대 일본 사회의 진전과 문화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존재를 귀화인이라고 평가한 것은 그들의 역할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세키 아키라가

堂, 1956(復刊: 講談社, 2009, 3~15쪽), 「歸化人」, 『日本史大辭典 2』, 平凡社, 1993, 629쪽.

36) 今井啓一, 『歸化人研究 總說編』, 綜藝社, 1972, 4~5쪽.

37) 大津透, 「解説」(關晃, 앞의 책, 2009), 231~232쪽.

규정한 귀화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토의 여지가 있다.

첫째, 위의 4)에 기재된 ‘일본에 거주하며 일본인의 일부가 된 인간과 그 후예’라는 귀화인에 관한 정의는 국민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 근대적인 귀화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둘째, 3)의 귀화인의 이주 시기 구분은 『고사기』와 『일본서기』, 『속일본기』, 『신찬성씨록』 등에 기술된 외부로부터 인간 이동에 관한 사료에 기초하여 <오진(應神)朝 전후에 도래한 사람을 오래된 귀화인>, <유라쿠(雄略)朝 이후의 도래인을 새로운 귀화인>으로 나눈 것이다. 그런데 『고사기』, 『일본서기』와 『신찬성씨록』 등에 기재된 도래 씨족의 일본열도 이주에 관한 조상전승은 오진조와 유라쿠조에 나누어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일본서기』 편자가 양 시대를 야마토왕권에 의한 국가 형성의 기원을 여는 시기로 간주한 역사관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5세기 후반 이전을 오래된 귀화인, 그 이후를 새로운 귀화인이라고 구분한 것은 실제 이주 시기와 관련 없이 기재된 조상전승에 의거한 구분에 지나지 않는다.³⁸⁾ 그러므로 『일본서기』 등의 고문헌에 기재된 한반도와 중국대륙에서의 도래 전승에 의거한 ‘귀화인’론은 재고되어야 한다. 셋째, 3)에는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기록이 보이지 않는 고분시대 이전 시기 예컨대 야요이(彌生) 시대에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인간(집단)의 이동에 관한 문제는 검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넷째, 4)에는 귀화인은 도래 당대만 아니라, 여러 대 이후의 자손도 포함되며, 귀화인인지 아닌지는 특수성의 존재 여부로 결정된다고 서술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성은 헤이안 초까지 이들이 중국이나 조선에서 가져온 다양한 기술과 지식, 문물이 당시 일본사회의 발전과 문화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과 도래한 귀화인의 숫자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중앙, 지방 합하여 상당수에 달하였기에 큰 영향을 미친 점 등 2가지를 들었다. 이것은 ‘인간의 이동’에 초점을 맞춘 설명으

38) 加藤謙吉, 앞의 책, 2017, 18쪽.

로 타당한 지적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도래한 사람들이 자신이 ‘某某인의 후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것을 천명하는 시기까지는 ‘某某系 일본인’으로 살아간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세키 아키라의 귀화인론에는 이러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660년과 668년에 모국이 멸망한 백제인과 고구려인이 도래 후 200년 경과한 시점에도 ‘某某인’ 대신에 ‘本某某人, 先某某人(其先百濟人, 本百濟人, 其先高麗人, 本高麗人)³⁹⁾’이라고 출신을 밝힌 것은 이들이 한반도에서 이주한 후손임을 인지하고, 주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율령시대가 되어 강제 遷徙, 雜居와 모반 방지 등의 조치와 賜姓(改賜姓)을 거쳐 일본의 공민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백제 혹은 고구려인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히라노 구니오가 귀화를 도래로 바꾸어 쓰는 것에 반대하며, 제시한 ‘신 귀화인’론을 살펴보자. 첫째로 『일본서기』에 기재된 인간의 이동을 2가지로 분류하였다. 하나는 「歸化, 來歸, 投化, 化來」 등은 ‘스스로의 의지에 의거해 온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고, 「貢, 獻」 등은 왕의 정치적 의지와 강제에 의거해 타율적으로 贈與, 交替, 上番되는 인간의 이동이라고 구별하였다. 따라서 귀화는 일정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말이지만 渡來는 단순히 ‘건너온다’는 의미만 지닌 말이므로 일본에 정착하여 일본인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도래인이라는 용어 사용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둘째로 귀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4세기말 오진조(應神朝), 5세기말부터 6세기 초의 유라쿠조(雄略朝), 긴메이조(欽明朝), 7세기 후반의 덴지, 덴무(天武), 지토조(持統朝)로 나누었다.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한반도의 정치적 긴장이 가장 고조된

39) 『日本後紀』 연력 18년(799) 12월 갑술조; 『續日本後紀』 승화 3년(836) 3월 임인조; 『속일본후기』 승화 7년(840) 6월 병인조; 『日本三代實錄』 정관 6년(864) 8월 17일 신미조 등.

시기에 정치 변동이나 전란을 배경으로 귀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셋째, 오진기(應神紀)와 유라쿠기(雄略紀)에 기재된 귀화 기사를 비교하여 양 기사에 유사성을 지적하면서 유라쿠기에 기재된 것이 본래의 기사라는 점을 논증하였다. 그러면서도 귀화의 시작을 오진기에 집중시킨 것은 귀화가 왕권의 성립을 전제로 한 개념이므로 『일본서기』가 왕권의 성립을 오진천황에서 찾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넷째, 귀화는 化外의 국에서 국왕의 덕치를 흠모하여 스스로 王法의 권내에 들어와 王化에 歸附하고 그 국왕도 일정한 정치적 의지에 의거하여 이를 수용하고 衣糧을 공급하고 안치하여 호적에 貫附하는 內民化 수속을 거쳐 그 나라의 예법 질서에 귀속시키는 일련의 행위 내지는 현상은 왕권의 성립을 전제로 한 ‘고대적 개념의 귀화’라고 규정하였다.⁴⁰⁾

그런데 히라노 구니오의 ‘신귀화’론은 귀화를 자율적 의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귀화가 이루어진 배경을 정치적 변동이나 전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의거한 인간의 이동은 피난이나 망명이지 국왕의 덕치를 흠모하여 귀화한 것이 아니다. 또 그는 물리적인 이동만 의미하는 도래에 비해 귀화는 『일본서기』의 「貢, 獻」 관련 기사와 구별되는 일정의 의미와 양상을 가진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귀화가 공, 헌 등과 구별되는 것이라면 결국 귀화인도 고대에 한반도나 중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을 총괄하여 일컫는 용어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확인된다.

따라서 ‘도래’가 가진 의미가 단순히 ‘건너오다.’라는 의미뿐이므로 일본열도에 ‘정주’한다는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들어 도래, 도래인이라는 용어 사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귀화인’론이 상당한 모순을 지닌 논리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표 1>에서 살펴보았듯이 ‘귀화인(도래인)’을 사용한 교과서가

40) 平野邦雄, 앞의 책, 1-10쪽.

확인될 뿐만 아니라, 교과서 집필의 학문적인 배경이 되는 일본학계에서도 귀화인이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하자는 연구가 확연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머리말에서 언급하였듯이 岩波書店이 간행하는 일본사학에 관한 총서인 『岩波講座 日本歴史』에 실린 1994년도의 고대사 부분 논고에 와다 아쓰무(和田萃)가 「渡來人と日本文化」⁴¹⁾를 게재한 데 비해 2014년에는 이전의 와다 아쓰무의 논고에 대응한 논고로 마루야마 유미코(丸山裕美子)의 「歸化人と古代國家・文化の形成」⁴²⁾이라는 글이 실려 있다. 마루야마 유미코의 '귀화인'론은 히라노 구니오와도 성격을 달리 한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서기』의 귀화는 스스로의 의지로 도래한 것으로 安置(定住)와 대응되고, 「공, 현」과 다른 개념이라고 서술하였다. 둘째, 자신들의 의지로 도래하여 정주한 사람들이 귀화인의 중심이고, 결과적으로 정주한 사람도 포함된다. 셋째, 왕권 혹은 국가가 수용한 인간들과 그 자손도 모두 귀화인의 범주에 포함하였다.⁴³⁾ 따라서 마루야마 유미코의 귀화인은 히라노 구니오가 「공, 현」 등에 의거한 도래자를 귀화인에서 제외한 것과 달리 왕권 국가가 받아들여 도래, 정주한 인간(집단) 모두를 포함시켰다. 이 주장에 대해 다나카 후미오(田中史生)는 마루야마 유미코의 귀화인이 “그들의 민족, 문화가 우리나라의 일부로 동화하여 우리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중시하는 세키 아키라의 귀화인의 정의와 유사하다.”라고 지적하였다. 또 “고대의 도래인, 귀화인의 피와 문화를 현대 일본인, 일본 민족의 조상으로 규정하려는 의식이 이주와 정주를 중시하는 귀화인, 도래인 연구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왜국 시대에 왜왕권이 안치한 것

41) 和田萃, 「渡來人と日本文化」, 『岩波講座 日本通史3 古代2』, 岩波書店, 1994.

42) 丸山裕美子, 「歸化人と古代國家・文化の形成」, 『岩波講座 日本歴史2 古代2』, 岩波書店, 2014.

43) 丸山裕美子, 위의 논문, 107-140쪽.

은 토지에 대한 신체의 정착이 아니라 신체를 매개로 하여 전해진 기술과 문화”라고 설명하였다. 그래서 『일본서기』에서 귀화라고 기술된 사람들이 역할을 수행한 뒤에 귀국하는 사례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⁴⁴⁾ 이러한 다나카 후미오의 기술과 문화 전파 중심의 설명이 가진 문제점은 앞 장에서 도래인, 귀화인 관련 서술이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이 인간(집단)의 이동을 일본열도 이주가 아닌 문화전파나 교류자라는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려 한 것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암과강좌 일본역사』 5차 시리즈에서 도래인이라는 용어 대신 귀화인이라는 용어가 채용된 배경에 관해 살펴보자. 『암과강좌 일본역사』 시리즈의 간행이 편집위원회가 시대 및 주제를 설정하여 각 집필자에게 배분하고 완성된 원고를 점검한 뒤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5차 시리즈의 고대사 부분 편입위원으로 「古代史への招待」를 집필한 오오쓰 토오루(大津透)의 도래인, 귀화인에 관한 인식이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오오쓰 토오루는 세키 아키라의 『귀화인』(복간) 해설편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國史大辭典 4』(吉川弘文館, 1984)의 「귀화인」 항목을 세키 아키라가 집필하며 ‘최근에는 귀화인이라는 말이 중국에서 본래 가지고 있던 중화사상적인 발상을 꺼려 도래인이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본에 거주하며 일본인의 일부를 이룬 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지 않게 되므로 적절한 용어라고 할 수 없다.’는 지적을 들어 고대의 학술, 법제 용어로 귀화는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는 점을 기술하였다. 또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사람의 의식으로 세키 아키라가 제시한 귀화인은 일본인의 일부라고 한 것은 차별이나 멸시와는 정반대의 의식을 나타낸 것이다.⁴⁵⁾”라고 기재하였다. 따라서 본 시리즈의 마루야마 유미코의 「歸化人と古代國家・文化の形成」이라는 주제는

44) 田中史生, 「歸化人'か'渡來人'か」, 『渡來人と歸化人』, 角川書店, 2019, 42~47쪽.

45) 大津透, 앞의 책, 239~240쪽.

편집자의 편집방침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오오쓰 토오루가 세키 아키라의 귀화인론에 대해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사람의 의식”이라고 하며 세키 아키라가 귀화인을 차별의식 없이 사용한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였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의 의식’이 아니라 세키 아키라의 귀화, 귀화인이 『일본서기』라는 고대 사서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용어라는 점에 있다. 앞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교과서에 등장하는 도래인, 귀화인이라는 용어는 야마토왕권의 성립과 발전기인 ‘고분시대’에만 한정하여 사용되고 있다. 또 이 시기의 한일 관계는 임나(가야)를 비롯한 한반도의 제국에 대한 ‘왜국의 우위’론에 기반을 두고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역사상은 근현대의 일본 역사학이 새롭게 제기한 것이 아니라, 고대 일본의 귀족이 설정한 것이다.⁴⁶⁾ 예컨대 “『고사기』와 『일본서기』를 신뢰한다는 것은 8세기 단계의 정치사상, 즉 천황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인 율령체제를 정당화하는 사상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⁴⁷⁾라는 이노우에 미쓰로(井上滿郎)의 주장은 고대 사서에 대한 이해의 적절함을 잘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도래인가, 귀화인가 하는 용어 사용 문제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일본서기』에 기재된 한반도 관계 기사의 철저한 분석과 비판을 통해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건너간 인간들’의 객관적인 실체를 찾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현행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기술된 渡來人と 歸化人 관계 서술

46) 서보경, 앞의 논문, 199쪽.

47) 井上滿郎, 「記・紀史觀と渡來人」, 『渡來人—日本古代と朝鮮』, リブロポート, 1994, 15~18쪽.

을 분석하여 일본학계의 연구 동향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주의하면서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건너간 인간들’이 어떤 존재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검토의 결과로 맺음말을 대신하려 한다.

첫째,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도래한 인간들’은 문화전파의 매개자로 기술되어 있다. 이것은 일본열도로 이동한 인간들이 아니라 문화를 전파한 존재라는 데 초점이 맞춰진 서술이다. 또 이들은 도래인 혹은 귀화인이라는 용어로 표기는 다르게 되어 있지만, ‘대륙문화’의 전파와 교류를 담당한 존재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한반도보다 중국대륙과 친연관계가 강한 인간들로 분류되어 있다.

둘째, 도래인과 귀화인이라는 용어는 일본 사학계에서 역사용어로 만들어낸 것이다. 귀화인이 앞서 사용된 용어이지만 1970년대를 거치며 귀화인이라는 용어가 가진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도래인이라는 용어로 교체가 일반화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최근의 일본 역사학계는 새로운 ‘귀화인’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더구나 ‘귀화인’이라는 용어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던 가토 겐키치(加藤謙吉)가 2017년에 낸 『渡來氏族の謎』에서는 “도래인과 귀화인이라는 용어의 시비를 둘러싸고 각각 입장일단이 존재하므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 결론은 이후에 말하고 여태 도래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으므로 본서에서도 이것을 답습하고자 한다.”⁴⁸⁾라고 서술하며 도래인, 귀화인 용어 논쟁에 대해 유보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역사교과서에서는 「6:2」로 도래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출판사가 대세를 점하고 있지만, 교과서가 학계의 통설적 연구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도래인’이라는 용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셋째, 도래인, 귀화인이라는 용어는 야마토왕권의 성립과 발전기인

48) 加藤謙吉, 앞의 책, 2017, 29쪽.

‘古墳時代’에 한정하여 사용되고 있고, 이 시기의 한일관계는 임나(가야)와 한반도 제국에 대한 왜국의 우위론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한일관계상은 근대 일본의 역사학이 새롭게 제기한 것이 아니라, 고대 일본의 귀족이 설정한 『일본서기』의 일본 중심, 천황 중심의 역사상에 의거한 것이다. 따라서 도래인가. 귀화인가 하는 용어 사용 문제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일본서기』에 기재된 한반도 관계 기사의 철저한 분석과 비판을 통해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건너간 인간’의 객관적인 실체를 찾아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참고문헌

〈국문 논저〉

- 김은숙, 「2011년 검정통과 일본 중학 역사교과서의 고대 한국관련 서술 내용 분석」, 『일본 역사교과서의 분석과 역사교육의 실태』, 한일관계사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1. 8.
- 나행주,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역사관과 고대사 서술-2011년 검정통과본의 분석을 중심으로-」, 『동국사학』 51, 2011.
- 박이순, 「高麗·唐·日本에 있어서의 「歸化(人)」 관련 의 범 연구-일본의 養老律令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43, 2012.
- 박현숙·서보경, 「일본 世界史圖錄에 나타난 古代 韓國史像」, 『백제연구』 54, 2011.
- 서보경,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고대 한일관계 기술에 대한 분석-2015년도 검정통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1, 2016.
- 세키네 히데유키,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의 전시에 나타난 한반도 도래인」, 『일본근대학연구』 49, 2015.
- 연민수,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古代史 서술과 歷史認識」, 『한국사연구』 129, 2005.
- 연민수,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古代史像과 歷史認識-2011년도 검정합격본을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 47, 2011.
- 연민수, 「통일신라의 대일관계」, 『한일역사쟁점논집』 전근대편, 동북아역사재단, 2010.
- 이근우, 「『新しい歴史教科書』의 역사인식과 선사·고대사 서술」, 『일본역사연구』 27, 2008.
- 이병로, 「나라시대 신라와 일본의 불교 교류에 관한 연구」, 『일본어문학』 29, 2005.
- 이재석, 「09년도 '새역모' 역사교과서(自由社版)의 일본고대사 서술 검토」, 『역사교육논집』 43, 2009.
- 이재석, 「새역모의 일본 古代史 구상의 특질과 문제점-自由社 교과서 및 扶

- 桑社 <교사용 지도서>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33, 2009.
- 전해중, 「『歸化』에 대한 小考－東洋古代史에 있어서의 그 義意－, 『백산학보』 13, 1972.
- 정효운, 「백제 멸망 이후 유민들의 일본 내 활동」, 『일본 속의 百濟 긴키(近畿) 지역』,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편, 충청남도, 2017.

<일문 논저>

- 關晃, 『歸化人－古代の政治・經濟・文化を語る』, 至文堂, 1956(復刊; 講談社, 2009).
- 關晃, 「歸化人」, 『日本史大辭典 2』, 平凡社, 1993.
- 上田正昭, 『歸化人－古代國家の成立をめぐる』, 中公新書, 1965.
- 上田正昭・金達壽・司馬遼太郎・村井康彦 「座談會 日本のなかの朝鮮」, 『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 1969.3.
- 上田正昭, 『古代の道教と朝鮮文化』, 人文書院, 1989.
- 森貞次郎, 『彌生文化の發展と地域性1 九州』, 『日本の考古學3 彌生時代』, 河出書房, 1966.
- 岡崎敬, 「日本における初期稻作資料との關連にふれて」, 『朝鮮學報』 49, 1968.
- 今井啓一, 『歸化人研究 總說編』, 綜藝社, 1972.
- 鈴木靖民,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985.
- 鈴木靖民, 「渡來人」, 『日本史大辭典 5』, 平凡社, 1993.
- 加藤謙吉, 「渡來人」, 『古代史研究の最前線1 政治・經濟編 上』 雄山閣出版 編, 雄山閣, 1986.
- 加藤謙吉, 『渡來氏族の謎』, 祥傳社, 2017.
- 平野邦雄, 『歸化人と古代國家』, 吉川弘文館, 1993.
- 井上滿郎, 『渡來人－日本古代と朝鮮』, 리프로포트, 1994.
- 和田萃, 「渡來人と日本文化」, 『岩波講座 日本通史3 古代2』, 岩波書店, 1994.
- 田中良之・小澤佳憲, 「渡來人をめぐる諸問題」, 『彌生時代における九州韓半島交流史の研究』, 九州大學, 2001.
- 李成市, 「統一新羅と日本」, 『古代を考える 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2005.
- 金善民, 「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歸化の意味」, 『國際中國學研究』 10, 2007.

- 中野高行, 「小中華意識における‘歸化(人)’」, 『日本古代の外交制度史』, 岩田書院, 2008.
- 廣瀬憲雄, 「古代東アジア地域對外關係の研究動向-‘册封體制’論·‘東アジア世界’論と‘東夷の小帝國’論を中心に」, 『歴史の理論と教育』 129-130, 2008.
- 大津透, 「解説」, 『歸化人-古代の政治・經濟・文化を語る』, 講談社, 2009.
- 廣瀬陽一, 「金達壽『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論」, 『人間社會學研究集録』. 2013.
- 丸山裕美子, 「歸化人と古代國家・文化の形成」, 『岩波講座 日本歴史2 古代2』, 岩波書店, 2014.
- 田中史生, 「‘歸化人’か‘渡來人’か」, 『渡來人と歸化人』, 角川書店, 2019.

【ABSTRACT】

An Analysis of Ancient Korean - Japanese History
as Described in Japanese Middle School Textbooks
- Focusing on described Toraizin and kikazin -

Seo, Bo-kyung

In the history textbooks in Japanese middle schools, the human group arriving from the Korean Peninsula to the Japanese Islands has been established as a mediator of culture diffusion. This group, written as Toraizin, or kikazin, was defined as those who were in charge of exchanging and disseminating (Chinese)continental culture; and classified as those who showed an even deeper root in Chinese continental culture rather than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such terms as Doraizin, or kikazin have been used only for Kofun period when Yamato royal authority was established and developed; the Korea-Japan relationship was described as the superiority of Wae in Wae's ruling Imna and the Korean Peninsula. This historical viewpoint is the one, centered on Japan, or Japanese Emperor, by Ancient Japanese noblemen, newly not raised by modern Japanese historical studies. Thus, the issue of whether using Toraizin or kikazin is not buried; but by the thorough analysis and criticism of the articles related to the Korean Peninsula, I think, the objective truth of 'who they were that went over to the Japanese Islands from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sought for.

【Key words】

Toraizin, kikazin, Kofun period, continental culture, culture diffusion,
Nihonshoki